

소제목 >>> 누가 과연 거짓말하는 사람인가?

1)

거짓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 못,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차원의 거짓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분이 라고 믿고 말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

예수님을 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근본적인 마음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장소, 환경, 나이, 직분을 불문하고 이것만큼은 언제나 놓치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때론 말씀을 지키지 못할 수 있지만, 명령을 지키려는 이 마음을 결코 빼앗기지 않고 사수하며 강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싶는데 안 될 때, 사랑하려 애쓰고 힘쓰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싸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싸움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씨름이 있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3)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말로 부인하는 것 뿐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부인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삶과 그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갈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 믿음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자랑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로 그리스도가 PR 되고 그리스도가 광고되어 그리스도를 시각화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4)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는 그들이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 기독교가 한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직분이 없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내 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이 내 몸에서 나타나시는 것을 위하고 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딜 가든지 내 몸에서 내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언행 심사를 통해서 예수

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상이기 때문입니다.

5)

나의 상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랑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랑 되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 수준, 그 깊이만큼 우리의 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울은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빌1: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누구 몸입니까? 내 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왜 자기 몸은 신경 안 쓰고 남의 몸만 그렇게 신경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로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몸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내 몸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6)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내 몸에서 예수님이 자랑 되고 예수님이 높여지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질그릇 같은 내 몸을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랑 될 수 있는 몸으로 쓰신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 썩어질 몸에서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는 그릇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영광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내 몸이 어디에 있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자랑 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나는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할 몸입니다. 그 몸으로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입은 몸입니다.

‘주여, 내 몸에서 예수님이 자랑 되게 도와주소서. 내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내 몸에서 예수님이 자랑 되길 원합니다.’ 이런 진심의 기도가 더해지고 더해지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암송 및 묵상 말씀 ☞☞ “ 갈라디아서 2 : 20 ”

◆ 적용

1. 다시 나에게 그리스도인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 다시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없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만 자랑 되는 삶입니다.)

2. 나는 연약한 내 몸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질그릇 같은 내 몸에서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랑 될 수 있는 몸으로 쓰이는 것 자체가 나의 큰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릇으로 사는 이 영광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